

전주 전역 착한 소독운동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800여명 참여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일제 소독

전주시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소독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는 최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시민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단체, 소상공인, 공동체,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전역에 대한 3차 '착한 소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시는 관계기관 직원과 단체, 시민 등 1800여 명이 참여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172개 구간의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분사 방식의 소독보다는 소독제가 묻은 천을 활용해 손이 닿는 곳을 중점적으로 소독했다. 또한 소규모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래방 488개소와 게임장 33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소독 실시여부와 손세정제 비치상태 등을 점검했다.



전주시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시민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단체, 소상공인, 공동체,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전역에 대한 3차 '착한 소독운동'을 진행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소독지침을 안내하기도 했다.

착한 소독운동에 공동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과 '꽃두렁 마을', '전주비전포럼' 등 지역 내 70여 개의 온누리공동체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공원, 버스 정류장, 상가 등 방역작업을 펼쳤다.

이외에도 지역 내 한옥마을과 상점가, 전통시장, 대형마트,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동주택 등 대대적인 소독활동이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100대 체험 콘텐츠 정보 수록해 4개 국어로 안내

문화와 관광으로 세계와의 승부에 나선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최신 여행정보를 담은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여행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국어로 안내가 가능한 전주한옥마을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흩어져 있던 한옥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일원화해 여행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했다. 또 한옥마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00대 체험콘텐츠 정보도 담았다.

특히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을 손쉽게 신청·접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한옥마을 내 버스킹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추후 체험공방들과의 협의를 거쳐 체험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예약할 수 있도록 해 한옥마을 체험여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종류에 따라 화면구성이 변하는 모바일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체험정보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남녀노소 여행객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포스터와 사진을 중심으로 시각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다.

향후 시는 국가관광거점도시 선정과 발맞춰 한옥마을 여행을 계획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상설콘텐츠부터 문화공연행사까지 연중 풍부한 최신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안정화돼 지역의 관광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대로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의 다양한 여행정보가 많은 여행객들에게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네이버 지식백과 등재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결정했다' 내용 등 신개념 시사상식으로 실려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맞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됐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그간 '기본소득'의 기본개념만 소개됐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짐에 따라 신개념의 시사상식으로 실렸다. 17일 네이버는 지식백과(저자 pmg 지식엔지니어, 제공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재난 발생 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명하게 정리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3월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 설명을 통해 전주시가 2020년 3월 13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맞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됐다.

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하게 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세부적인 설명을 넣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모범사례로 언급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도입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시 역시 118만 여가구에 30~50만원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

남도지사는 각각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796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6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연대일 것이라며 "전주가 처음 도전한 재난기본소득이 들불처럼 퍼져나가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는 대한민국 인터넷 전문 기업인 네이버가 2700여 건의 전문사전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교차로 3개소 조명탑 설치

평화동 지시제 옆 회전로터리 · 춘향로 좁은목 오거리 · 안골사거리

전주시가 야간시간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조명탑을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교차로 3개소에 야간에 모양이나 색이 눈에 쉽게 띄도록 조명탑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평화동 지

시제 옆 회전로터리 △춘향로 좁은목 오거리 △안골사거리 등 3개소이다.

시는 조명탑 설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장조사와 디자인 협의를 추진해 조명탑 기초 공법과 조명등 기구 선정을 마쳤으며 이달 내 착공에 들어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조명탑이 설치되면 반경 50m 구간의 사물 인지도가 높아져 보행자 안전사고와 차량 간 추돌사고 등 야간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상 기자

'제1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운영 통한 생산수익 첫 배당 진행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민햇빛발전소가 가동 이후 첫 수익금을 배당받게 됐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발전소 건립비용을 출자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제1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운영을 통한 생산수익에 대한 첫 배당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햇빛발전소의 첫 배당금은 당초 목표했던 태양광의 평균일조시간 3.6시간/일을 초과하는 4.0시간/일을 기록해 131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민햇빛발전동조합은 조합원의 서면결의를 통해 이사회 위임 총회를 갖고 4.0%의 초기목표를



초과하는 4.28%의 첫 배당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효자배수지에 발전용량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데 총 1억5400만원을

출자했던 시민 조합원 121명은 출자규모에 따라 적게는 4728원(세전)에서 많게는 141만8400원(세전)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